

## 발탈 연희고 (演戲攷)

沈 雨 晟  
(문화재전문위원)

### 이동안(李東安)의 계보

1930년대까지만 해도 「포장굿」이나 또는 「유랑극단」에서 한 독립된 연희종목으로 구실했던 「발탈」은 이제 잊혀져 가는 민속연극중의 하나이다.

발바닥에 탈을 씌우고 탈꾼은 누워서 흡사 「꼭두각놀이」의 포장과 흡사한 무대면이 되는 공간을 통하여 극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탈놀이로서의 성격과 인형놀이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 생존한 유일의 발탈 연희자 이동안(李東安·74세)은 명창이며 역시 발탈의 명수였던 박춘재(朴春載)의 대를 잇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재인청(才人廳)의 세습적 광대였던 이재학(李在學)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12살에 당시 수원을 찾아왔던 남사당패를 따라 집을 뛰쳐 나간 뒤 3년 동안 땅재주와 줄타기를 익혔다.

가출한 아들을 찾아나선 아버지에게 황해도 땅에서 붙잡혀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내심 자식만은 재인으로 키우기를 꺼려한 선친으로부터 정식 승낙을 받아 본격적인 수련을 쌓기 시작한다. 줄광대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김관보(金官甫)를 독선생(獨先生)으로 앉히고 배우게 되었는데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집 뒤의 산에 줄을 매고 옛날 이봉운(李鳳雲·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김관보와 함께 줄기의 양 대가였음)과 우리 조부님이 줄을 배우던 바로 그 장소에서 줄타기를 배웠어... 처음부터 김관보씨에게 배운 것은 아니고 임상문(林尙文·사망, 당시에 이름을 떨친 줄꾼)의 아버지로부터 배웠지. 1년 동안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궁둥이가 까져 줄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심한 학습(學習)을 했던거야. 참다못해 임상문이와 함께 황해도 재령으로 도망을 쳤었지, 결국 아버지하고 임상문이 아버지한테 붙들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심하게 죽치데……」(신찬균(申瓚均) : 민속(民俗)의 고향(故鄕), “자리판 놀음 「발탈」을 찾아서” 참조)

이렇게 해서 줄타기에 능숙해진 이동안은 비로소 광무대(光武臺)로 올라오게 되었다.

여기서 「김인호」로부터 춤을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춤의 명칭과 이동안 자신의 해설을 곁들여 소개한다.

승무 : 깊은 산중에 도승과 제자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도승이 병이 들게 되어 정성을 다하나 백약이 효험이 없게 되자 백일기도 끝에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디선가 풍악소리가 들리면서 승려가 내려와 3현 6각을 잡히고 북을 치면서 승무를 추는 것입니다. 춤을 추던 승려는 이것이나 해 보라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스승은 어느새 병이 완치되어 있더군요.

이로부터 절집에서 승무를 추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일반 춤꾼들도 새로이 한판의 승무를 짜서 추어온다는 것입니다.

진쇠춤 : 이 춤은 아왕시절에 왕이 각 지방의 원님을 불러 향연을 베풀면서 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였는데 사또들이 제각금 꿩과리를 치며 춤을 추었더군요. 이 춤의 원바탕은 시골에서 굿을 할 때 「터벌림 춤」에서 나온 것이라는 예기도 있습니다.

태평무 : 이 춤은 궁중무용의 하나로써 궁중에서의 각종 축연때에 추어진 것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내려와 할랑춤꾼에 까지 퍼진 것입니다.

할랑춤 : 이 춤은 어릿광대놀음의 성격이 짙은 무용극으로서 할랑과 증(승(僧)), 주모(酒母), 기생, 집사 등이 어울려 노는 춤입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의 기녀를 놓고 할랑과 증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싸움으로 엮여져 있어서 흔히 보는 산대 도감놀이와 흡사한 춤놀음이라 하겠습니다.

병신춤 : 이 춤의 유래에 대하여는 확실치는 않으나 아마도 이조때, 산대회(山臺戲)에서 창우(승우(僧優))들이 놀던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戲)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춤장단은 굿거리, 타령, 자진굿거리 등으로 추어지는데 춤의 내용은 다리병신, 얼굴병신, 문둥이, 앓은뱅이, 꼬추, 팔병신, 뼈적다리, 안종다리 등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이동안용의 설명을 비교적 그대로 옮겨본 것이다. 이용의 춤에 대해서 무용평론가 정병호(鄭炳浩)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분은 누구에 못지 않게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평생 아껴왔다. 책이나 구전(口傳)만으로 들어온 진쇠춤, 병신춤, 그리고 할랑춤, 발탈 등이 그것이다.

이용은 이와 같은 춤 외에도 가창(歌唱)과 기악(器樂), 줄타기 등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분의 춤에는 춤집에 있어 역학적인 안배가 잘 되어 있고 몸짓의 다양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익혀온 줄타기에서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은 춤과 소리, 기악과 줄타기를 하는 하면 발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예능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안용이 발탈을 배우게 된 내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70년전부터 유랑극단을 따라다닐 때 박춘재가 노는 발탈을 보아왔지만 직접 연회를 한 것은 20세 때 함경도 고무산(古茂山) 극장에서였다고 술회한다.

스승인 박춘재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무대에 나설 수 없이 되자 대역으로 나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로는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고 전한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는 유랑극단에서 다투어 부름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만주와 일본에까지 진출하여 그의 갖가지 연희를 보였다고 한다.

## 발탈의 극술(劇術)

발탈의 무대는 인형극 꼭두각시놀음 포장막의 축소형을 연상하면 된다. 포장안의 발탈꾼은 번 듯이 누워서 손과 발로 「조기장사」로 통하는 1인 뿐인 탈을 포장밖으로 내밀어 놀리며 갖가지 소리와 재담과 춤으로 극을 진행한다.

1인극(獨演(獨演))의 높은 극술로 짜여진 발탈은 탈과의 대화자(또는 해설자이기도 함)인 어릿광대와의 대화를 통하여 재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탈꾼의 몸은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탈을 써운 오른 발만 포장 밖으로 내밀어 어릿광대와 어울려 재담을 주고 받는다.

어릿광대는 장고를 잡고 그 옆에 피리, 젓대, 해금 등이 반주를 맡게 된다.

탈은 「봉산탈춤」이나 「강령탈춤」의 탈과 마찬가지로 종이탈을 쓰고 있는데 현재 이용이 소장하고 있는 것의 크기는 세로 「25센티미터」, 가로 「20센티미터」의 크기에 상투가 달려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극술 역시 꼭두각시놀음에서 보이는 대잡이(인형조종자)와 산받이(악사이자 인형과의 대화자)와의 관계와 똑같은 형식이다.

여기에서의 대화자는 바로 구경꾼들의 의중(意中)을 대변하는 <탈>과 <구경꾼>과의 사이에서 다리의 구실을 하고 있음도 주목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독창적인 발탈놀음이 어느 때부터 있어온 것인지 그 유래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상고(詳考)할 길이 없다. 이용의 스승인 박춘재의 바로 윗대부터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 연희자 고 남형우(南亨祐)옹은 발탈도 꼭두각시놀음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며 자기도 소시에 잠시 논적이 있다는 것이다.

남옹에게 발탈을 일러준 스승은 바로 꼭두각시놀음의 스승인 황해도 사람 오명선(吳明善)이라 하니 아마도 발탈 역시 떠돌이 연희집단 사이에서 폭넓게 돌아졌던 놀이가 아닐까 하는 궁색한 추론(推論)을 할 뿐이다.

노 국악인 김천흥(金千興)선생도 박춘재의 박탈을 직접 보았음을 증언하며, 박춘재 말고도 몇 사람의 발탈꾼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제 1인극 형식으로 연희되는 발탈은 오직 한 사람 남은 이동안옹에 의해서 가까스로 그 명맥만을 잇고 있을 뿐이다.

또 하나의 민속극 유산을 발굴하고 정립하는 뜻에서 연희자 이용이 구술하는 대로 연희본을 채록해 보았다. 이용 자신이 이 발탈을 연희한지가 너무도 오래 되어서 구술할 적마다 다소 다른 점도 있으나 그 길고 짧음은 그때그때 걸맞는 소리를 추가하거나 춤을 늘이고 줄이며, 즉흥적인 재담의 출입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연희내용으로 약 40분 내외가 소요되고 있다.

잡이로는 이영수(李英秀), 조한춘(趙漢春)이 오랜 상대이며, 김순봉(金順奉), 오주환(吳柱煥), 김한국(金漢國) 등이 근년에 와서 가담하고 있다.

■ 「발탈 연희본」

어릿광대 : 이놈, 한 번 놀려야겠다. 애, 이놈아 손님이 많이 오시었으니 인사해라.

발탈 :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어릿광대 : 어허, 그놈 인사 잘한다. 너를 보러 오신 손님이니 손님 대접을 하여라.

발탈 : 무엇을 할까?

어릿광대 : 너 춤출 줄 아니? 춤 한상 추어라.

발탈 : 그럼 장단을 쳐라. 굿거리를 추자.

(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어릿광대가 무대 위를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좋다” “잘한다” “얼씨구”등으로 추임새를 한다.)

어릿광대 : 아따 그놈 잘도 춘다. 애 이놈아 춤만 추면 되느냐? 소리 한 번하여라.

발탈 : 소리는 무슨 소리를 할까?

어릿광대 : 조선 팔도 좋은 산천을 유람해야 하니께 만고강산(萬古江山)을 해라.

발탈 : 장단 쳐라. 만고강산이다.

(어릿광대가 발탈 옆에서 북 장단을 친다. 악사석의 악사들은 풍악을 울리지 않고  
춘다.) - [주(註)① 만고강산(萬古江山)]

어릿광대 : 아따 그놈 소리도 잘하는구나. 넌장할놈. 임마, 춤 한 번 더 추어라.

발탈 : 헛튼타령을 쳐라.

(타령에 맞춰 춤을 춘다. 어릿광대가 무대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추임새를  
한다.)

어릿광대 : 야 이놈. 참 잘 춘다. 너 개성난봉가 아니?

발탈 : 송내는 낸다.

어릿광대 : 한 마디 해라.

발탈 : 아따, 그 자식 되게 여러 가지 시킨다.

(악사석에서 북 장단을 위시하여 피리, 젓대, 해금, 장고가 반주를 맡는다. 어릿광대  
는 무대 위를 뛰어다니면서 추임새를 부른다.) - [주(註)② 개성난봉가]

어릿광대 : 여 임마. 너 직업이 뭐냐?

발탈 : 야 임마. 지갑이 뭐라, 돈 넣는 것이 지갑이지.

어릿광대 : 여 보아라. 대관절 너 해 먹구 사는게 뭐냐?

발탈 : 이런 병신 보게.

어릿광대 : 뭐?

발탈 : 뭐 먹고 살어. 밥먹고 살지.

어릿광대 : 아니 이놈아. 밥 먹구 또 먹는 것 있지?

발탈 : 내 먹는 것 여러가지다.

어릿광대 : 그 뭘 그렇게 많이 먹냐?

발탈 : 그래. 먹는 걸 내 이를게, 들어 보아라. 버섯도 따 먹고 도토리도 쪼어 먹고 밤  
도쪼어 먹고 대추도 먹고 날물에 날 잡아 먹고 들물에 들 잡아 먹고 술도 먹  
고 안주 먹고 또 먹고 반찬 먹고 송어, 민어, 준치, 갈치, 넓적한 가제미며 등

굴등굴한 홍어,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범치, 장어, 납작한 오징어, 민어, 허리 굽은 새우, 사람보면 각각 쏘는 범치, 소가리, 툭툭 쏘는 자가사리, 퍽퍽 퍽 퍽한 미꾸라지, 여울목에 피래미, 모래 속에 조개, 굽이치는 치리, 물쟁, 산에 비둘기, 산에 까토리, 장마에 우는 맹꽂이까지 다 잡아먹고 가제, 개구리까지 다 잡아 먹고 상어 고래까지 먹는다.또 하나 있다.

어릿광대 : 또 하나는 뭐냐?

발탈 : 너 할머니 그것도 먹고 너 할아버지 그것도 먹고, 이제 할게 없어 생선 장사한다.

어릿광대 : 예구 그놈. 승해서 못보겠네.

(발탈을 툭 치는 시늉을 하면서 몇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접근한다.)

생선 장사면 뭐 하나?

발탈 : 조기 장사한다.

어릿광대 : 몇 못 세어 다오

발탈 : 하나로구나 하나, 둘이로구나 둘, 셋이로구나 셋, 셋 받아라. 넷이로구나 넷, 다섯,엿에 일곱이로구나. 일곱, 여덟이로구나. 아홉, 열이로구나. 한 못이로구나. 한 못, 두 못, 세 못, 네 못, 다섯, 여섯, 일곱 못이다. 갖다 먹어라.

어릿광대 : 아따 그놈. 잘 쟀다. 그것만 먹고 다른 건 없니? 그럼 넌 뭏 먹고 사니?

발탈 : 그것도 아니다. 난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서 고사(告祀)지낸다.

어릿광대 : 그 고사 한 번 해 봐라.

발탈 : 덩더덕구 덩더덕구 한 번 쳐라.

(악사석에서 장고와 북으로 굿거리장단을 친다.)

고사 고사 고사로다. 천개어자하고 지궤이 어축하야 삼재 문재 이른 후에 천황 씨천하를 마련하고 지황씨 지하를 마련하고 태호복희씨요 염제신농씨요 황제헌 원씨요. 헌원씨는 배를 보아 광하를 통케 하고 제요도당씨요 제순유오씨요. 제순유호씨는 역산에 밭을 갈아 오곡백과를 먹게 마련하고, 걸곡으로 못먹어서 방아를 걸었으되 인수 인간이 올라서 덜커덩 쪼어대니 허연히 옥식이라. 화덕씨가 불을 때고 인황씨가 갖힌 밥을 쟁반에 받쳐 조상에 제사한 후에 액(厄)땀이를 하여 본다.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로 막아내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삼질 막아내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파일 막아내고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단오 막아내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유두 막아내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칠석 막아내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 한가위로 막아내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구일 막아내고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상달에 막아내고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팔죽 막아내고 동짓달에 드는 액은 선달그믐날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정 칠월, 이 팔월, 삼 구월, 사 시월, 오 동지, 육 석달이 내내 돌아갈지라도 태평가를 부르면서 각도 수비를 풀어 맥이자. 상층은 설흔 여덟, 중층은 스물 여덟, 하층은 열 여덟, 우중간 남수비야, 좌중간 여수비야, 재를 넘던 수비야, 메 많이 먹고 멀리 가거라. 나는 웃음으로 영화하고 너는 뛰어 땀기면서 지랄해라.

어릿광대 : 야 임마. 시간이 거진 다 됐으니 진도아리랑 한 번 해봐라.

(악사석에서 북 장단을 위시하여 피리, 짓대, 해금, 장고, 반주가 울리면 발탈이 진도아리랑을 부른다. 어릿광대는 뛰어 다니면서 추임새를 부른다.) -

[주(註)③ 진도아리랑]

어릿광대 : 아따 그놈. 소리 잘 한다. 처먹는 것도 되게 많구. 야 입마. 다 먹구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덧배기 춤 한번 추고 인사해라.  
 (악사석에서 풍악 올리면 발탈이 덧배기 춤을 춘다. 한참 추다가 발에 긴  
 탈을 벗기고 일어선다. 탈을 손에 들고서 객석을 향해 인사한다.)  
 끝으로 파연곡(주(註)④) 또는 신난봉가 등을 악사 반주에 맞춰 창을 하면  
 객석의 손님들은 자리를 떠난다.

註

① 萬古江山

萬古江山 遊覽할 제 三神山이 어디메뇨. 一蓬萊 二方丈 三瀛洲 이 아니냐. 竹杖 짚고 風月 실어 蓬萊山을  
 구경갈 제 鏡浦 東嶺에 明月을 구경하고 淸澗亭 洛山寺와 叢石亭을 구경하고 斷髮嶺을 일른 넘어 蓬萊山을  
 올라서니 千峰萬壑 芙蓉들은 하늘 우에 솟아 있고 百折瀑布 急한 물은 銀河水를 기울인 듯 仙境일시 분명코  
 나. 때마침 暮春이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우는 새는 春光春色을 자랑한다. 蓬萊山 좋은 경치 咫尺에  
 던져 두고 못본 지가 몇 날인가. 多幸히 오늘날에 萬古江山을 遊覽하여 이곳을 當到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어  
 화, 세상 벗넌네야. 桑田碧海 웃들마소. 葉盡花落 없을손가. 西山에 지는 해는 楊柳絲로 잡아매고 東崩에 걸린  
 달은 桂樹에 머물러라. 한없이 놀고 가자 아니 놀고 무엇 할거나. 할 일 해가면서 돌아보세.

② 開城 난봉가

朴淵瀑布 흘러 나리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 든다. (후렴 : 에에헤야 에 에루화 좋고 좋다 어라함마디여  
 라 내 사랑아.)

朴淵瀑布가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라 兩人的 情만 못하리라. (후렴)  
 三十丈 斷崖에서 飛流가 直下하니 朴淵이 되어서 범사정을 감도네. (후렴)  
 月白雪白 天地白하니 山深夜深이 客愁心이로다. (후렴)  
 乾坤이 不老 月長在하니 寂寞江山이 今百年이로다. (후렴)  
 슬슬 東風에 굶은비 오고 時和年豊에 임계서 노잔다. (후렴)  
 주린 百姓을 배에다 싣고 건너다 대이니 富村이라. (후렴)  
 가는 곳마다 情 들여 놓고 離別이 잦아서 나는 못살겠네. (후렴)

③ 珍島아리랑

聞慶 새제는 웬 고갯고 굽이야 굽이야 눈물 난다.  
 (후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치어다 보는 萬壑은 千峰 굽어 보니 白砂地로다. (후렴)  
 임이 죽어서 極樂을 가면 이내 몸도 따라가지. 地藏菩薩. (후렴)  
 다려 가오 날 다려 가오. 우리 님 뒤 따라서 나는 가네. (후렴)  
 원수야 악마야 이 몫쓸 사람아. 생사람 죽는 줄을 왜 모르나. (후렴)  
 저놈의 계집애. 눈 좀 보소. 속눈만 뜨고서 발발 떠네. (후렴)  
 왜 왔던고, 왜 왔던고, 울고 갈 길을 왜 왔던고. (후렴)

④ 罷讌曲

罷讌曲하사이다. 北斗七星이 앵들어졌네. 잠을 넘 잠으시고 날같은 님은 보내소서. 童子야 신 둘러 놓아라,  
 갈 길 바빠 하노라. (1972. 9. 10)



(1) 발탈꾼 이동안(李東安)옹



(2) 춤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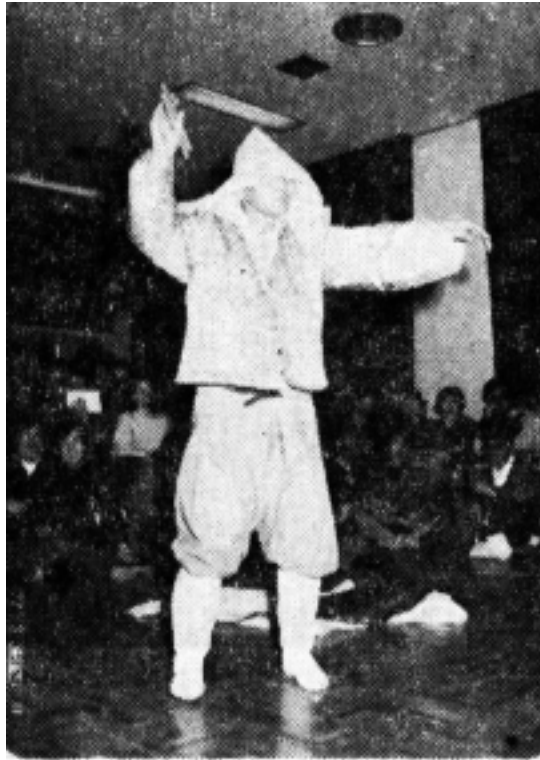
←(3)

(3) 발탈



(4) 줄타기





(5) 승무



(6)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의 춤